

옛날옛날에 하늘나라에는 하늘의 왕의 아들 「환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땅을 보고 있던 환웅은 고생하고 있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구름과 비, 바람등 3천의 무리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환웅은 인간을 위해 곡식과 생명과 선악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한 어느날 꿈 한마리와 호랑이 한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서 백일동안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인간이 될것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몇일이 지나자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굴에서 뛰쳐 나왔지만, 꿈은 100일을 참고 견뎌내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시조가 된 「단군」입니다.

이상은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를 옛날이야기의 형식을 빌려 쓴 글입니다. 꿈이 인간으로 변하여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 그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홍익인간 정신」.

둘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일민족 사상」. 셋째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연친화 사상」등 입니다.

이렇듯 심오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단군의 신화는 쉽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구전되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문화를 계승시키는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